

본문에서 발견하기

-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 신분은 무엇입니까?

-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?

- 에베소 교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?

- 성도들은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? 그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??
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

-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?

- 건물에서 모퉁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?

- 성도는 누구와 어떻게 연결됩니까?

- 성도는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갑니까?

-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?

-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?

적용하기

-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입니까?
-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기여하고 있습니까?
-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?

지난 주 말씀묵상 (에베소서 2:14-18)

-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"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"(14절)고 선언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시며, 단순히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심을 강조합니다.
- 그리스도께서 '둘'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할 때, '둘'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.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었고,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멀리 있던 자들이었으며, 유대인은 언약 안에 있던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.
- '중간에 막힌 담'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성전의 구조에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던 물리적 담을 가리킬 수 있고,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이 둘을 함께 포함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."그리스도의 피"(13절), "자기 육체로"(15절), "십자가로"(16절) 등의 표현이 반복되며,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.
-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은 "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", 즉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할례, 음식 규례, 정결 규례 등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분하던 율법의 규례들입니다. 이것은 율법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, 율법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옛 언약 체계를 폐하신 것입니다.
-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목적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이다(15절). 나뉘고 적대하던 두 집단을 화해시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- '한 새 사람'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탄생한 새로운 인류,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. 옛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 적대하였으나, 새 인류인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구분도 차별도 적대감도 없습니다.
- 하나님과의 화목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(16절).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 몸에 받으심으로, 원수된 것(적개심)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. 이로써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-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신 대상은 "먼 데 있는 너희"와 "가까운 데 있는 자들"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(17절). 즉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.
- 먼 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을 가리키고,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언약과 율법 안에 있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. 그리스도의 화평은 이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.